中, 5천년 불교유적 광산 채굴 재착수

2013년 중단됐던 메스아이낙 인근 550만톤 구리 매장된 것으로 추정
수천 개 달하는 유적 매장돼 주목
개발 허가한 탈레반에 비판 이어져

박정현 객원기자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정권과 손잡고 아프간 로가(Logar)에 위치한 불교유적 메스아이낙(Mes Aynak) 인근 구리광산 채굴을 재개할 예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6일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광산회사(MCC)는 3월 중 탈레반 정권 초청으로 카불에 방문해 구리광산 채굴 재개와 관련해 논의한다. 메스아이낙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구리 매장지로,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약 550만 톤의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07년 아프간 정부는 메스아이낙 아래 잠재된 100조 이상 가치를 가진 구리광산 채굴권을 중국 광산회사(MCC)에 30억 달러에 팔았다. 이후 중국은 구리광산 채굴에 나섰으나 구리 시세 하락과 아프간 내전 등 요인으로 인해 2013년 채굴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아프간에서 미군과 유엔연합군 등이 철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이 메스아이낙 구리광산 채굴에 다시 나섰다.


아프간 로가에 위치한 불교유적 메스아이낙. 출처=부디스트도어

로가 지역 관리들은 "메스아이낙 구리광산 채굴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됐다"며 "중국 MCC는 채굴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몇 가지 세부 내용을 조율한 후 곧장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개의 중국 광산 회사가 구리 자원 추출 기회를 얻기 위한 계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메스아이낙이 5000년 된 불교유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수십 개의 진기한 형태의 사리탑과 사찰들, 수천 개에 달하는 불교 유물들이 다량 발견돼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과거 서방과 동방을 연결했던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로 꼽힌다.

유물 발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리광산 발굴을 중단하라는 전 세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경제력 강화를 위해 메스아이낙 일대 개발을 허용한 탈레반 정권을 향한 비난도 들끓는 분위기다.

탈레반 정권은 그동안 박물관, 도서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과 약탈을 일삼았고 예술 및 문화 활동을 금지했다. 특히 2001년 바미안에서 6세기 제작된 불상 2개와 국립박물관에 소장됐던 수많은 불상과 유물을 파괴했다.

부디스트도어 등 외신은 "탈레반 정권에 의해 지난 20년간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됐다"며 "아프간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유물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스아이낙의 훼손 소식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업체인 카템퀸 필름(Kartemquin Films)에 의해 2015년부터 공론화됐다. 카템퀸 필름은 당시 다큐멘터리 '메스아이낙을 구하라' (Saving Mesaynak)를 제작하고 1만 명 서명운동, 유네스코 청원운동 등을 벌였다. 카템퀸 필름은 "후손들에게 메스아이낙을 안전히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야산 진언종 신임 법인 우츠미 쇼류 스님
〈法印〉

3월 12일, 총본산 콘고부지서 취임식

1년 간 종조 코보대사 대리 활동
법인 상징 주홍색 가사장삼 전달


제 523대 법인으로 취임한 우츠미 쇼류 스님. 사진출처=곤고부지 공식 페이스북

일본불교에서 천년 넘게 법맥을 이어오고 있는 고야산 진언종(高野山眞言宗)이 한국의 종정에 상응하는 새 법인(法印)을 맞이했다. 지난 3월 12일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 콘고부지(金剛峰寺)에서 봉행된 취임식을 일본의 '교도통신' '와카야마 TV' 등이 보도했다.

일본 최대 불교 종단 중 하나로 꼽히는 진언종. 이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고야산 진언종이 새 법인(法印)으로 우츠미 쇼류(內海照隆) 스님을 맞이했다. 법인이란 일본불교에서 가장 높은 법계로, 불교의 핵심인 삼법인에서 유래해 승단의 가장 뛰어난 스님을 이른다.

그 시작은 864년, 당시 진언종 고승이었던 신가(眞雅)대사에게 천황이 '법인대화상'이라는 법계를 올린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관직으로는 종2품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았다. 조정에서 선출해 법인을 임명하던 것이 중세부터는 종단 내에서 법랍에 따라 선출하게 됐다.

고야산 진언종 법인의 정식명칭은 '사무검교집행법인대화상(寺務検校執行法印大和尚)'으로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 동안 법인은 종조인 코보대사(弘法大師)의 대리자로 산내의 법회와 중요한 의식에서 법주 역할을 맡는다. 종조의 대리라는 상징성에서 법인은 일상생활과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임기 중엔 고야산을 떠날 수 없고, 의복이나 음식 등도 제한된다.

올해 제523대 법인으로 취임한 쇼류 스님은 올해 세납 75세로, 고야산에서 수행정진하며 현재 고야산 산내암자인 난인(南院)의 주지를 맡고 있다.

이날 아침 쇼류 스님은 학인을 상징하는 흰 가사와 검은 장삼을 수하고 콘고부지에 입장, 경내의 불전들을 모두 참배하고 참석자들의 하례를 받았다. 쇼류 스님은 "불초함에도 순서가 되었음에 대중께선 너그러이 봐주소서"라고 하는 전통적인 인사말로 하례에 참가한 이들에게 법인의 취임을 공표했다. 이후 스님에게는 법인 상징인 주홍색 가사 장삼이 전달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6억 원 복권 당첨된 태국 스님, 당첨금 회향

학교 · 사원 · 자선단체에 기부
지역 주민 · 참배객에도 나눠

우연히 산 복권이 모두 당첨돼 1800만 밧(한화 약 6억 6000만 원)라는 거금을 손에 넣은 스님이 모든 당첨금을 자선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회향해 화제다. 3월 7일 태국의 현지 언론 '카오소드', '더 타이거' 등은 스님의 당첨금 회향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태국 북동부 나콘파놈주에 소재한 왓 프라탓 파놈 (Wat Phra That Phanom)은 부처님 쇄골뼈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성지다. 이곳에서 10년간 수행정진한 스님이 최근 구매한 복권 3장 모두가 당첨되면서 그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스님은 "10년간 사찰을 떠나지 않고 정진한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 3월 1일 공양청을 받아 인근 식당을 들렀다가 복권을 들고 다니며 식당 손님들에게 파는 한 여성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복권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복권 역시 일종의 도박이므로 출가자가 이것을 사는 것은 계율 상 적절치 않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생계거리가 끊겨 복권을 팔고 다닌다는 말에 안타까움을 느껴 몇 장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 번호는 061905로 이중 605가 타오웨수완 신상 앞에서 기도할 때 본 번호"라고 전했다. 타오웨수완은 태국에서 악귀를 막고 부를 불러주는 것으로 신앙되고 있는 신이다. 스님은 "당첨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기에 추첨이 끝나고 3일이 지나서야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첨금을 나눠주고 있는 스님(왼쪽)과 사찰에 모인 사람들 모습. 출처=카오소드

스님은 "당첨금은 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달해 준 것"이라며 이미 자신이 수행한 왓 프라탓 파놈 사원과 학교, 지역에서 사람들을 돕는 국가 및 민간 자선단체에 400만 밧(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찰을 참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500밧(한화 약 2만 원)씩 나눠주고 있다.

당첨금을 회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찰로 몰려들고 있다. 3월 7일 기준으로 150만 밧이 지역주민들에게 회향됐다. 타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나눠주는 금액을 500밧에서 200밧로 낮추긴 했으나 매일 이른 아침부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지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행렬을 통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열사병 대책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이처럼 스님들의 복권 당첨이 소식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에도 한 스님이 동일하게 1800만 밧에 당첨돼 당첨금 전액을 희사한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교수가 말하는 '부디쉬'란?
〈Buddhish〉

살게로 교수 불교입문서 발간
신조어 통한 쉬운 불교 강조


피에르체 살게로 교수. 출처=펜 스테이트 에빙턴 대학 홈페이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한 펜 스테이트 에빙턴(Penn State Abington) 대학 아시아 · 종교학 부교수 피에르체 살게로가 마음챙김수행 방법 등을 담은 불교입문서 '부디쉬: 20개 가이드' (Buddhish: A Guide to 20)를 발간했다. 해당 대학이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게로 부교수가 발간한 '부디쉬: 20개 가이드'는 학술적인 내용이 아닌, 불교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저자 살게로 부교수는 "마음챙김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 없다"며 "이 책은 불교 수행의 가치과 전통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학문적 연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책을 통해 '부디쉬' (Buddhish)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불교(Buddhism)에 '~의 성질을 가진'이라는 뜻의 접미사 '-ish'를 붙인 것.

살게로 교수는 "나는 불교와 평생의 인생을 기록하려고 한다"며 "나는 비평가이자 학자로서 불교를 연구하는 동시에 불교의 열렬한 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저서에서 살게로 부교수는 태국 사원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보낸 일화를 공유한다. "지난 25년간 불교에 대한 조사와 독서의 산물을 18개월간 집필 과정에 담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기존의 글들은 너무 건조하고 읽기 어렵다. 또 비싼 면도 있다"며 "읽기 쉽고 친근하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불교 입문서를 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